

남성과 여성의 펀드투자 행동과 투자성향 차이에 관한 연구

최진영(인천대 석사) · 성영애(인천대 교수)

최근 펀드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펀드가입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펀드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펀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성별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투자 성향의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하여 한국 투자자 보호재단의 2009 펀드 투자자 조사 자료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3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펀드투자행동이란 펀드투자여부와 금융자산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투자성향은 5가지 문항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중 어떤 투자를 선호하는지, 투자자금은 빚으로 마련하는지 여유자금으로 하는지의 여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상품 중 어떤 상품을 더 선호하는지, 직접투자와 분산투자 중 어떤 방식의 투자를 더 선호하는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 중 어떤 투자를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문항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 빈도와 백분율, 평균, 신뢰도 검증, t-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펀드 투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성이 '투자한다'가 47.2%, '투자하지 않는다'가 52.8%이고 여성이 '투자한다'가 50.1%, '투자하지 않는다'가 5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녀 전체 평균 48.7%가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은 13.29%, 여성은 14.22%, t값은 -1.14로 나타나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선호하고, 투자자금 마련에 있어서 남녀 모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려는 성향이 매우 높으나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의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할 때 남성은 집중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분산투자를 더 선호하였고, 남성은 안정성보다 수익성 높은 상품을 더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품을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단기 또는 장기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펀드투자 여부와 금융자산에서 펀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집중투자, 직접투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남녀 각각에 알맞은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